국가적 시련기에 더욱 빛난 불교의 저력

14대 선조 - 목릉

선조 1552–1608(57세)
재위 1567.7(16세)–1608.2(57세)

제14대 선조 가계도

- 중종 – 창빈 안씨 → 9남 덕흥대원군 → 3남 **제14대 선조**
  - (하성군,1552~1608)
  - ● 재위기간:1567.7~1608.2 40년 7개월
  - ● 부인 : 8명
  - ● 자녀 : 14남 11녀
- 의인왕후 박씨 (자식 없음)
- 인목왕후 김씨 – 1남 1녀: 영창대군, 정명공주
- 공빈 김씨 – 2남: 임해군, 제15대 광해군
- 인빈 김씨 – 4남 5녀: 의안군, 신성군, 원종 (정원군, 인조아버지), 의창군, 정신옹주, 정혜옹주, 정숙옹주, 정안옹주, 정휘옹주
- 순빈 김씨 – 1남: 순화군
- 정빈 민씨 – 2남 3녀: 인성군, 인흥군, 정인옹주, 정선옹주, 정근옹주
- 정빈 홍씨 – 1남 1녀: 경창군, 정정옹주
- 온빈 한씨 – 3남 1녀: 흥안군, 경평군, 영성군, 정화옹주

목릉(穆陵)은 조선 14대 선조(1552–1608)와 원비 의인왕후(1555–1600) 박씨, 계비 인목왕후(1584–1632) 김씨의 능이다. 정자각 뒤로 세 개의 언덕이 보이는데, 동원이강 형식의 변형이다. 왼쪽이 선조의 능, 가운데가 의인왕후, 오른쪽이 인목왕후의 능이다. 처음에는 건원릉 서쪽 다섯 번째 산줄기에 안장되었는데, 물기가 있고 불길하다 하여 지금 자리로 옮겼다. 의인왕후는 건원릉 동쪽 셋째 산줄기에, 인목왕후는 건원릉 동쪽 다섯째 산줄기에 안장되었다. 사적 제193호.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산 2–1 동구릉 능역 안에 있다. 동구릉 전체 면적 191만5891㎡(57만9557평).

선조릉에서 본 계비 인목왕후 능의 전경.

임진왜란 · 정유재란 등 조선 최대의 국난 시기
전국 사찰서 승군 봉기 평양성 탈환 등 큰 활약

명종의 유일한 혈육, 순화세자는 13세에 요절했다. 왕후와 6명의 후궁 중 누구도 잉태하지 못했다. 그래서 중종의 아홉째 아들 덕흥군의 3남 하성군이 왕위를 이어받았다. 그가 선조 임금이다. 하성군의 즉위로 조선은 후궁에게서 태어난, 서얼 출신 혈족이 왕위를 잇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부자연스런 즉위만큼이나 선조 대는 조선 최대 국난의 시기다. 임진왜란 · 정유재란은 최대의 국가적 위기였다. 온 나라가 초토화된 전란이었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2차에 걸쳐 왜국이 조선을 침범했다. 1차를 임진왜란, 2차를 정유재란이라 부른다.

전란 이전, 배불사상은 여전히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이었다. 산중 불교로 만족하며 고된 수행에 전념하는 것이 전부였다. 극심한 탄압은 없었으나 불교를 멸시하는 행위는 여전했다. 정업원 비구니가 금강산 유점사에서 불사를 하려다가 체포되자, 유생들은 정업원의 개혁을 요구했다. 국내외 정세는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 대내적으로 붕당간의 권력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을 때 대외적으로는 여진족과 일본의 외침이 있었다. 선조는 1590년 황윤길 · 김성일 · 허성 등을 파견하여 일본의 동태를 파악하도록 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륙 침략을 계획하고 있었다. 서인인 황윤길은 일본이 많은 병선을 준비하고 있어 멀지 않아 병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한 반면, 동인인 김성일은 침입할 조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했다. 대신들은 김성일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통신사와 함께 온 일본사신이 "1년 후에 조선의 길을 빌려서 명나라를 칠 것"이라고 통고하자 조선 정부는 크게 놀라 뒤늦게 경상도 · 전라도 연안의 여러 성을 수축하고 각 진영의 무기를 정비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했다. 1592년 4월 13일 왜군이 부산포에 상륙, 파죽지세로 보름 만에 서울까지 쳐들어왔다. 선조는 개성으로, 이어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몽진(피난)했다. 왕이 적의 포로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실록에는 수군 이순신, 의병, 명나라 원군의 활약상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의승의 역할은 미미하게 여기는 당시의 세태 때문이다. 그러나 기록이 허술하다고 그 활약마저 덮여지지는 않는다.

선조는 묘향산 보현사에 머물고 있던 서산 대사 휴정에게 팔도도총섭의 직함을 내리고 승군을 일으켜 적을 물리치라는 칙명을 내렸다. 배불사상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멸시 당하던 승려들이 임진왜란이 터지자 갑자기 국가의 유용한 자원이 되었다. 휴정은 73세의 노구를 이끌고 결연히 일어났다. 전국 사찰에 격문을 보내 승군의 봉기를 호소했다. 서산 대사는 순안 법흥사에서 의승 1500명을 모았다. 사명 대사는 건봉사에서 의승 700명을, 뇌묵 대사는 전라도에서 1000명을, 기허 대사는 공주 갑사에서 700명을 모았다. 전국에서 의승군이 봉기하니 그 수가 5000여명이 되었다.

의승군은 생사를 잊고 왜적과 싸웠다. 말을 타고 석장을 휘두르며 선두에 서서 분전했다. 명나라 군대와 합세하여 평양성을 탈환했다. 왕이 환도할 때는 휴정이 지휘를 맡고 정예 의승군 700명을 뽑아 어가를 호위했다. 의승군의 활약상은 화려하게 실록에 기록되지 못했지만 국난극복에 기여한 공로는 빛이 바랠 수 없다.

이순신 · 권율 등이 이끄는 관군도 왜군과 싸워 승리를 거두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왜군을 격퇴했다. 1593년 4월 왜군이 남쪽으로 퇴각하자 그해 10월 선조는 서울로 돌아왔다. 이후 1594년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조총과 탄환을 만드는 기술을 연마하도록 했다. 1597년 일본은 명과의 강화회담이 깨지자 다시 침입했다. 그러나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과의 전투에서 연이은 패배와 도요토미의 사망으로 총퇴각함으로써 임진왜란은 7년 만에 끝났다.

그 후 사명 대사는 일본에 건너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강화를 맺었다. 왜관을 열어 시장을 여는 것을 허락하고 조선인 포로를 데리고 귀국했다. 7년 동안 지속된 전란이 끝나자 선조는 전란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민심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스스로 의복을 검소하게 입고 사치를 배격했다. 농토를 개간하고 식량증산을 독려했다. 백성들의 사기를 돋우고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전란 중 공을 세운 사람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상을 내렸다.

그러나 전란 복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흉년과 조정의 당쟁이 악화되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란의 수습과 복구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채 선조는 59세(1608)를 일기로 41년간의 치세를 마감했다. 이후에도 불행은 이어졌다. 승하하기 전 신하들에게 계비 소생 영창대군을 부탁한다는 유훈을 남겼으나, 광해군에 의해 영창대군은 아홉 살에 살해되었다.

선조는 8명의 부인에게서 14남11녀를 얻었으나, 그 많은 자식들의 삶은 순조롭지 못했다. 정비 의인왕후는 자식이 없었고, 계비 인목왕후는 너무 늦게 영창대군을 낳았다. 적실이 아닌 공빈 김씨가 낳은 광해군으로 왕위가 계승되면서 험난한 역사를 예고한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665호 20면에 게재된 '조선왕릉에서 불교를 읽다㉘' 기사 중 '제12대 인종 가계도'를 '제13대 명종 가계도'로 바로 잡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도.

현재 진주성 모습.

2008 학년도 불교범패작법전수원

신입생 모집

불교의식을 기초과정부터 전문과정까지 체계적으로 배우실분 모집합니다.

기초과정 (1년) 개 강	종성, 조석예불, 사시불공, 각단불공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12시〉 **3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전문과정 (1년) 개 강	천도재(49재), 범패 · 작법, 사물다루는 법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3월 6일 목요일 오후 1시**

◆구비서류 : 이력서 1통. 수강신청서(소정양식)1부. 사진 2매

◆준 비 물 : 필기도구. 녹음기. 태징. 목탁. 요령

송원사불교범패작법전수원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50–1(문막 I.C~문막방향 3분거리)
☎ 033)731–7759 / 011–269–4168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자수 대진 합장

옥석공예사

불상. 석탑. 건축. 자연석. 석물. 납골당

수십여 년의 불사경험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정진하는 자세와 장인정신으로 원만한 불사의 주춧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덕 큰스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옥석공예사 대표 임상균 합장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60–2
031)859–5689 / 011–353–3622